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7.7.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부 첨단자동차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문수, 사무관 김진우 • ☎ (044) 201-3847, 3934
	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		• 팀장 김준동, 사무관 황선영 • ☎ (044) 202-6150, 6152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전국 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전자신문, '21.7.7) >

◆ “C-ITS 본사업 보류...기재부, 통신 기술 비교·실증 요구”

◆ “웨이브 vs C-V2X 수년째 평행선...장기표류 가능성”

- C-ITS 통신방식 관련, WAVE와 LTE-V2X 방식을 비교·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, 올해 하반기 착수를 계획했던 C-ITS 구축사업이 전격 보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)는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,

○ 한국판 뉴딜에 따라 '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C-ITS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(구축계획) 전 고속도로, 국도 및 주요 지방도 약 3만 km 구축(~'25)

○ 아울러, 양 부처는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 내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밟아가는 과정에 있으며, C-ITS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윤치영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김진우 사무관(☎ 044-201-3934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황선영 사무관(☎ 044-202-61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